

## 성인병과 구강질환



정 종 평

사람은 나이를 먹고 늙어감에 따라 신체 여러 부위에서 노화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노화현상의 하나로서 흔히 성인병을 겪게 되곤 한다.

사람의 입안(구강)은 원래 몸의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 이상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성인병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성인병의 징후가 구강내에서 쉽게 발견되곤 한다.

따라서 구강내의 여러 증상은 신체 다른 부분에서의 이상을 탐지할 수 있게 하기도 하며, 또한 다른 부위에서의 이상으로 인해 구강의 점막 등이 영향을 받아 구강의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연령의 증가로 나타나는 전신적인 질환과 구강내에서의 질환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성 호르몬 변화에 따른 구강의 변화

성 호르몬은 특히 여성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성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은 구강점막 내의 혈관 변화에 관여하며 에스트로젠(Estrogen)은 구강점막의 정상적인 각화에 관계하고 있다. 그러나 난소적출을 하거나 폐경기에 이른 여성들은 구강점막의 각화가 감소되기 때문에 매운 음식을 먹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구강점막이 건조해지기도 쉽다.

### 당뇨병과 구강질환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형과 인슐린 비의존형으로 크게 나뉘고 있으며 이중 성인병으로 분류되는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은 일반적으로 45세 이상의 비만형 성인에서 발생된다.

이 경우 식이요법과 경구 저혈당제로 조절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뇨병이 발생되고 나면 혈액 내에 백혈구의 세균 탐식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며, 글루코스의 양이 혈액내에 높아지므로 외상에



대한 치유능력이 저하되고 칸디다성(곰팡이성) 구내염과 심한 잇몸 질환(치주질환)이 발생된다.

이러한 경우 철저한 당조절을 한 후 치료를 하게 되면 구강내에 나타나는 모든 질환은 제거될 수 있다. 특히 잇몸질환으로 치아가 흔들리고 피가 나는 경우 더욱 더 당조절이 중요하며 나중에 수술로서 상태가 완치될 수 있다.

###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구강질환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주로 수혈 또는 성교에 의하여 감염되어 나타나는 질환인데 이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우리 몸의 감염을 막아주는 T 임파구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구강 및 기타 장기에다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킨다.

이중 구강내 질환으로는 구강내

**사람의 입안은 몸의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다.**

모상백반증, 칸디다증(곰팡이 감염), 치주질환(잇몸질환), 비 치주성동통 유발성 궤양, 바이러스 감염 및 카포시 육종 등이 나타난다.

모반백반증은 혀에 나타나며 증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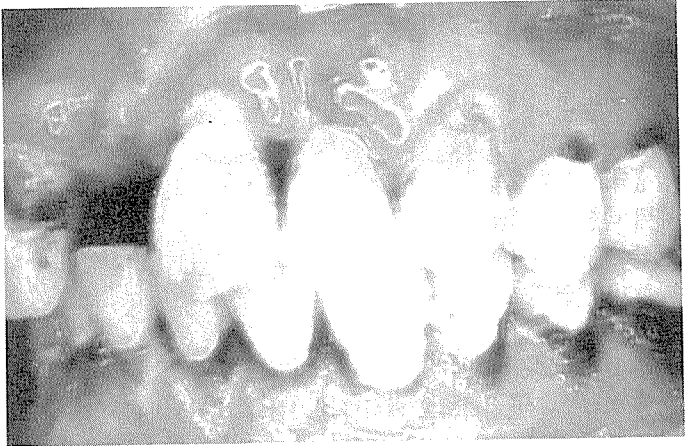
없이 큰 형태로 각화, 주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칸디다증은 면역억제제 치료 및 소모성으로 우리 몸의 저항이 떨어지면서 생기는데 잇몸, 입천장 등에 나타난다. 카포시성 육종은 동통없이 입천장 쪽에 흑갈이 나타나며 적자색을 띄운다.

### 심장관계 질환과 구강질환

심장관계 질환으로는 협심증, 동맥부행로, 대뇌혈관 발작, 울혈성 심부전, 고혈압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 구강내에 직접적으로 질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인병으로 간주되는 잇몸질환(치주질환)이 발생되고 잇몸질환의 정도가 심할 경우의 치료에 있어서 이러한 심장관계 질환 환자에서는 상당한 조심이 뒤따르며 치료방법도 달리해야 한다.

이러한 심장질환 환자는 먼저 내과 의사의 협조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위험정도를 논의하여

야 한다. 적어도 발치나 잇몸수술 같은 치료방법을 선택할 때는 협심증의 증상 완화, 심근경색증 완화, 기타 뇌출혈 방지, 심부전 예방, 고혈압 예방 등을 미리 행한 후 내과 의사가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기에 치료를 해야 한다. 특히



고혈압 환자의 잇몸에서 자발적으로 피가 나는 현상이 자주 보이며 이 경우 고혈압 치료 및 잇몸치료가 병행되어야 된다.

### 신장질환과 구강질환

신장질환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이 경우 합병증으로서 많은 질환이 나타나게 되며 그중의 하나가 잇몸질환이라고 보겠다. 신장질환 환자는 대부분 영양상태가 안좋고 저항능력이 약하므로 구강내 세균감염에 노출되어 있다. 이 경우 잇몸이 피가 잘나고 붓고 냄새가 나며 치아도 흔들린다.

이런 증상이 치주염인데 구강감염 예방을 철저히 한 후 치료를 하게 되면 무리없이 잇몸염증이 제거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치료가 요

당뇨병에 의한 잇몸질환이 발생한 경우, 당 조절을 철저히 한 후 구강 내 질환을 치료토록 한다.

(사진 : 당뇨병에 의해 진행된 치주염)

구된다. 신장질환 신염의 말기, 혈액투석기, 신장이식술 후기 등의 각종 시기에 전신적인 합병증과 더불어 구강내 염증과 잇몸질환이 생기므로 입원시 치료치료를 포함한 전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 간질환과 구강질환

간질환은 간염과 간경화 및 간암 등으로 구분되나 어떠한 형태의 간질환의 경우에도 그 후유증으로 구강내 출혈, 종창, 기타 세균감염이 나타나게 된다. 일단 간질환을 가지게 되는 환자는 전신적인 쇠약, 감염에 대한 저항력의 약화 현상 등이 나타나며 혈소판 및 기타 혈액응고 기전의 결함 등으로 구강출혈이 흔히 나타난다.

이 경우 간염치료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구강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부에서의 세균감염을 막아 주어야 된다. 지속적인 세균 감염을 방지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잇몸질환 및 구강 감염증 제거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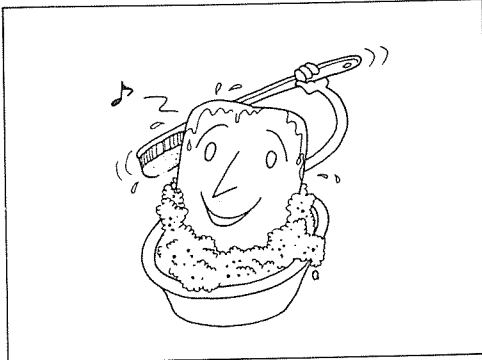
특히 B형간염의 경우는 치은의 출혈이 주증상이나 알콜

에 의한 간경변 등의 경우 출혈, 울혈, 설염, 구강염 및 침샘비대 등의 복합후유증이 나타난다.

### 백혈병과 구강질환

백혈병은 소아의 경우에서 나타나기도 하나 성인의 경우에서 더 빈발하다고 본다. 이러한 백혈병 환자의 구강내 증상으로는 계속적으로 잇몸에서 피가 나고 궤양이 자주 생기고 잇몸이 비대해지거나 간혹 잇몸의 울혈을 호소하며 자주 잇몸이 감염되어 고름도 나며 치료를 하여도 잘 낫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로 내과에서 백혈병으로 진단받기 이전에 구강 내의 이상 때문에 치과에서 먼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백혈병으로 진단이 된 환자는 혈소판 숫자 및 기타 혈액검사를 실시한 후 출혈 정도를 관찰하여 치석제거 및 치근면 활택술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시술 전 후에 항생제나 항균제를 전신적 및 국소적으로 투여하여 감염을 막는 것이 좋겠다.

### 류마치스성 관절염과 구강질환

**치아를 깨끗이 관리해 세균감염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잇몸질환 예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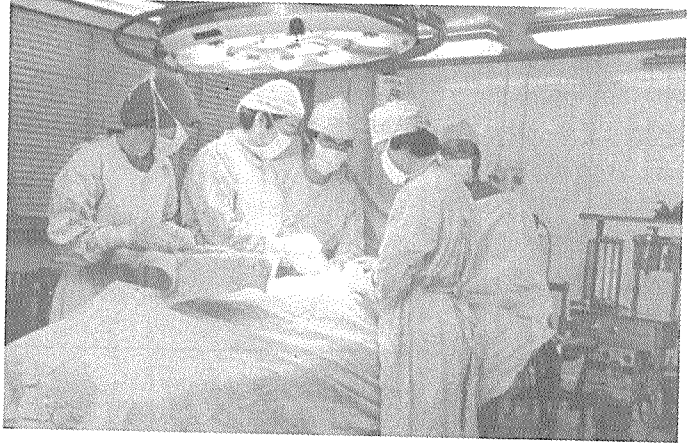
류마치스성 관절염은 성인에서 주로 발생하는 전신질환이지만 구강내에서도 그 후유증으로 이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악관절에 이상이 생겨 소리가 나고, 염증이 생기면서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오기도 하며 음식물 저작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잇몸에 염증과 더불어 구강내 염증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전문치과의사에게 진찰과 더불어 관련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 고혈압과 구강질환

고혈압환자의 경우 구강내에 나타나는 주증상으로는 심한 치은출혈, 지나친 고혈압 약제투약으로 인한 구강건조증, 구강내 궤양, 염증 및 안면마비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혈압을 안정권으로 저하시켜

야 되며 혈압조절제  
제의 후유증을 최소  
로 한 상태에서 구  
강내 치석제거 및  
항균제를 투여하여  
염증을 제거하여야  
한다.

## 암환자와 구강 질환



여러 종류의 암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치  
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이 있게 된  
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 후에도 구  
강내에 여러가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즉, 구강건조증, 안면근육  
의 수축, 치아의 파민반응, 다발성  
치아우식증(충치), 이차적으로 바  
이러스나 세균, 칸디다성 구내염,  
자연발생적 치은출혈, 치조골 등의  
노출과 골조직의 파시 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동통을  
감소시켜 주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  
해 항생제를 투여하며 기타 항균제  
로서 구강내 염증을 없애주어야 한  
다. 그러나 구강수술 등은 피해야  
하며 가능하면 최소의 자극과 구강  
손상을 주는 치료를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성인병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가지 합병증 및 치료

**암환자가  
방사선, 항암제  
치료를 받은 후  
여러가지  
구강내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후의 후유증이 구강내에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며 성인병이 전신적으  
로 나타나기 이전에 구강내에 전구  
증상으로 많은 이상이 나타나게 된  
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질환이 치  
과 진료를 할 때 제일 먼저 발견되  
기도 하며 치과의사로부터 해당되  
는 타과로 의뢰가 이루어지게 된  
다. 또한 구강내의 증상도 당연히  
치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성인병으로서의 전신질환이 발  
생되면 주 증상을 먼저 치료하되,  
구강치료를 겸해야 할 경우 내과의  
사에 의하여 치과진료를 하여도 이  
상이 없게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속  
적인 치과진료에 의하여 구강내 증  
상들은 완화될 수 있으며 치아는  
보전될 수 있다. ☞

〈필자=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